

# FOCUS

## 믹서트럭 조종사 교육훈련에 관련한 일정조정에 대한 건의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는 1997년 4월 7일 개정공포하고 동년 7월1일 시행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제83조 제2항에 규정한 조종사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일정을 레미콘공급 성수기철에 계획을 잡아 이에 대하여 성수기때를 피한 비수기로 조정하여 줄 것을 '97년 8월 29일 건설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였다. 건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종사 교육훈련일정에 따른 업계의 문제점 - 조종사 교육훈련 실시계획을 보면 금년 12월 말까지 이수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조종사에 대하여 매년1회 8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97. 7. 1부터 시행하였음.

이는 법운용에 있어 배치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교육일정을 관련업체와 협의한 일도 없이 조종사교육훈련 안내통보로 인하여 업계에 홍보전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조종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재 성황중인 건설업계의 공사 차질뿐 아니라 우리업계에 큰 피해를 끼칠수 있다고 판단됨.

우리업계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써 양당사자 사이의 의견 조정후 또는 레미콘 비수기 철인 1-2월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면 하는 입장임.

2) 당 협회의 입장 - 우리나라 레미콘 산업은 1965년도 국내에 처음 상륙하여 이후 30년동안 국가정책산업 및 국민복지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97년 6월말 현재 전국의 542개사 697개 공장에서 연간 301,774천 입방미터를 생산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공급하여 왔으며, 특히 이러한 건설현장에 레미콘공급의 운송수단은 믹서트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1997년 6월말 현재 믹서트럭의 대수는 전국적으로 약 20,317대이며 서울·경인지역은 약 7,450대이다. 상기에서도 레미콘산업의 특성을 언급했지만, 건설경기 성수기인 지금 믹서트럭의 100%운행을 하더라도 레미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레미콘성수기철에 조종사 교육을 실시한다면 지하철공사, 아파트 공사등의 건설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만아니라 우리레미콘업체의 공장가동율도 현저하게 저하되어 경영의 어려움을 주게됨.

현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더불어 각 기업과의 문제점 발생시 의견조율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경제의 난국을 타개한다는 측면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국가건설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레미콘트럭 조종사들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3) 문제해결의 제시방안 - 당협회에서도 일방적으로 교육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과는 달리 우리 레미콘 믹서트럭은 운행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건설공사현장의 콘크리트타설이 지연됨으로 다음공사자(내부공사, 설비공사 등)들에게도 피해가 초래된다고 볼 때 우리 레미콘업체의 믹서트럭 조종사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되더라도 비수기 철(1월-2월)로 조정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임.

본 건의문에 대한 경기도의 회신내용을 보면 건설기계조종사 교육훈련은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실행되어 일정이 촉박하고, 이미 결정되어 실시되는 관계로 일정조정을 할수없음을 알려드리며, 피교육생 교육훈련일자 변경요구시 해당지역 교육기간내 일정조정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레미콘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훈련일정에 반영하겠다고 알려왔음. (회신일자 : 1997. 9. 10)

### 레미콘 수요구조 변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는 레미콘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구조를 조사한 결과 레미콘수요구조에 있어서 현대의 구조물이 대형화, 고층화, 고급화 되어감에 맞추어 요구되는 고강도, 고슬럼프의 레미콘 소비가 점증하는 등의 수요추세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레미콘 수요추세 변화에 따른 골재의 소비구조도 크게 변화되었다. 하천골재의 비중이 점차 골재의 고갈과 골재채취의 허가의 엄격한 심사로 인하여 부순모래, 갯자갈등이 늘어나는 등의 소비구조의 변화를 나타냈다.

지난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출하량의 절반을 웃돌던 180강도의 경우 지난 92년에 28.74%로 낮아진데 지난 96년 20.44%로 5년만에 다시 8.3%포인트 낮아졌다. 210강도도 지난 92년 51.74%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지난 96년 47.98%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240강도는 92년에 12.74%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1.25%로 5년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레미콘수요의 구조 변화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구조물의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레미콘업체 국제규격(ISO 9000) 획득 현황

1997년 7월말 현재 국제규격 ISO 9000인 증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타 산업분야에 비해 ISO9000인증획득이 저조한 편이며, 이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퇴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 진입한 외국 건설사의 추세는 늘고 있으며, 이들 건설사들의 수요측면에서 국제규격화된 건자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명명백백하다.

레미콘 산업도 극도로 발전하여 신제품, 신기술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로 승부할수 있다는 차원에서 레미콘 생산업체의 ISO9000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증획득에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 조사한 레미콘 생산업체의 ISO9000인증획득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업 체 명	인증기관	인증규격	인증일자	비 고
01	한양(주)	YUV-B	9001	95.09.25	
02	고려산업개발(주)	BVQI	9001	96.01.13	
03	경북콘크리트공업(주)	KSA-QA	9001	96.01.27	
04	우리산업(주)	KPC-QA	9002	96.04.06	
05	대연콘크리트(주)	KSA-QA	9002	96.06.22	
06	(유) O.K	KSA-QA	9002	96.09.07	
07	동양시멘트(주)	KSA-QA	9001	96.09.13	
08	한라콘크리트(주)	KMA-QA	9002	96.09.20	8개공장
09	제일콘크리트공업(주)	KPC-QA	9002	96.11.04	
10	제일레미콘(유)	KPC-QA	9002	96.11.04	
11	백산레미콘(주)	KMA-QA	9002	96.11.08	
12	한일건재공업(주)	KPC-QA	9002	96.11.18	
13	현대콘크리트(주)	KSA-QA	9001	96.12.13	
14	대림콩크리트공업(주)	KSA-QA	9001	96.12.23	
15	곰레미콘(주)	KSA-QA	9002	96.12.30	
16	(주)한영레미콘	KMA-QA	9002	96.12.31	
17	(주)미룡레미콘	TRADA	9001	97.01.07	
18	원우아스콘(주)	KICM-QA	9001	97.02.17	
19	동명레미콘(주)	KICM-QA	9002	97.04.25	
20	강원레미콘(주)	KICM-QA	9002	97.05.15	
21	유진종합개발(주)	KICM-QA	9001	97.05.19	
22	천마콘크리트공업(주)	KICM-QA	9002	97.08.27	
23	세화산업(주)	KICM-QA	9002	97.08.27	
24	한일홍업(주)	KPC-QA	9002	97.09.06	
25	우림콘크리트공업(주)	KSA-QA	9002	97.09.22	

## 수도권 광역전철 신설

건설교통부는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 광역전철과 광역도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청량리-덕소, 의정부-동두천, 용산-문산, 수원-인천 등 수도권전철 복선화와 신림-안양간 도로신설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차원에서 신설할 계획이며, 이에따른 건설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수도권 택지개발사업비의 3%를 전철건설비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입법예고된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광역전철사업은 국가가 용지비 및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또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비의 3%가 지자체의 광역전철 건설비로 지원된다.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각각 해당 구간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수도권 외곽 전철역 주변에 건설되는 환승

주차장도 광역교통시설로 간주돼 사업비의 30%를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간 재정분담 논란등으로 지자체 인접구간의 교통시설이 미흡해 수도권 교통난이 가중돼 정부는 지난 4월 특별법을 제정한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안을 확정함으로써 건설사업에 필요한 지자체간 재정분담 비율이 결정됐다.

이에따라 수원-인천간 52.8km, 용산-문산간 46.4km, 구로-인천간 27km, 의정부-동두천간 18.9km, 청량리-덕소간 17.8km, 수서-선릉간 6.6km 복선전철사업과 신림-안양간 2.08km 도로 등 앞으로 착공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된 광역전철 및 도로 건설이 앞으로 수립될 광역교통계획 1단계 사업으로 편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은 일단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우선 실시되며 사업성과 및 추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광역교통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부소속 1급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 재경원, 철도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광역교통기획단을 부내에 설치하여 '98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수 시멘트

한국양회공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 시멘트산업의 소비구조는 국내건설산업의 붐으로 양적인 팽창을 이루어 왔지만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구조물 및 건설환경에 사용할수 있는 특수시멘트의 사용 비중은 일반시멘트 비중의 0.5%로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구조에 있어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시멘트의 사용비중이 낮은 원인은 수·요·생산·가공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있어 콘크리트구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수시멘트로는 조강(2종) 중용열(3종) 내황산염(5종) 초조강 메스리 고강도 방통용등 특수시멘트는 30만 3천톤으로 전체 시멘트 소비중0.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양회협회 및 관련업계는 발표했다. 이는 지난 87년의 1.34%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87년 이후 특수시멘트의 출하비중을 살펴보면, 88년 (0.16%), 89년 (0.15%), 90년 (0.42%), 92년 (0.84%), 93년 (0.38%), 94년 (0.45%), 95년 (0.51%) 등으로 나타나 10년간 평균이 0.52%에 그치고 있다.

특수시멘트는 품목에 따라 1-3일내에 28일 강도를 발현하거나 내구성·내화확성·내부식성 등이 우수하며 수화열이 보통시멘트에 비해 낮은 특성등으로 해안구조물·동절기공사등에 적합한 기능성 콘크리트제조에 용이한 것인데 특수시멘트의 수요가 부족한 것은 다양한 현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시멘트 벌크화율 84%점유

한국양회공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소비 시멘트 6천1만1천톤 가운데 벌크형태로 출하된 시멘트는 5천51만2천톤으로 전체 84.2%의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전인 지난 87년 55.4%의 벌크화에 비하면 28.8%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포장 시멘트는 지난해 9백49만9천톤으로 1987년의 1천5만8천톤 보다 오히려 줄어드는등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벌크시멘트의 출하비중이 해가 거듭

할수록 높아지는 원인은 포장시멘트보다 수송효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포대비용 하역비 등이 필요없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신기술개발

철광석슬러지를 재활용한 철도강화노반재를 금호건설에서 개발했다. 철도노반과 같이 지지력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철도 강화노반재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이제품은 철물제조후 남는 슬러지를 재활용하였다는데 환경오염방지 측면에서 그 활용이 기대된다.

금호건설의 특허를 출원한 철도강화노반재는 노반의 압력, 함수비, 배수불량등의 원인으로 노반의 연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철도노반재로서 시멘트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나 하중과 진동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그로인하여 일정시기가 지남에 따라 파손과 균열로 보수공사가 잦았으며, 이런점에 착안한 철광석슬러지를 기본재료로 하는 신개발품은 잠재수경성을 가져 철도통과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도록 개발됐다.

이와같은 물성을 가진 슬러지에 시멘트와 CSA팽창제를 첨가해 공학적으로 요구되는 소정의 강도와 투수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했다.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등 철도건설현장에 신제품공급을 계획한 금호는 차후로 모델시험, 공법등에 대한 기술적 보완을 거쳐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슬러지를 이용한 신기술개발의 보급은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이라는 측면

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으며, 앞으로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한 신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 일부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서 남발

지금까지 ISO9000(품질경영체제)의 인증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서 남발행위에 대해 통산산업부는 적발 인증기관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에 실시한 ISO9000 인증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형식적인 인증심사를 통해 ISO9000인증서를 남발한 인증기관을 적발, 이들기관들 중 3-4개 인증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등을 내릴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통산부는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 이러한 조치로 ISO인증절차가 한층 강화됐고 PQ심사때 ISO인증에 대한 가점 조건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것이어서 상당기간 기업 인증취득의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PQ심사때 ISO인증점수를 종전 3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 인증수요를 유인한 반면, 인증기준은 강화하여 ISO 품질경영체제를 갖추었다더라도 3개월이상 이를 유지해야 인증서를 부여함에 따라 ISO품질경영체제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사전 준비기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등록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만 PQ가점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증수요가 등록인증기관으로 집중됨에 인증추진업체의 인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규업체 자금난 압박

지금까지 우성건설, 건영, 한보, 삼미, 한신공영 등의 부도사태로 인한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업체수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의 심화와 아울러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 어느해 보다도 금년은 대형건설사들의 부도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의 건설업 사상 최대 부도율을 나타냈으며, 연말까지 그여파로 더 많은 수의 건설업체가 부도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소규모의 신규업체로써는 자금의 난이 가중되어 경영난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특히 95년 이후 설립된 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부도업체가 전체 부도업체의 37.8%에 이르는 37개사에 달해 신규업체의 증가로 인한 수주경쟁난으로 신규업체의 경영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부도에 이른 건설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경인지역 등 수도권과 5대광역시에 사업소를 둔 업체가 기타 지방에 소재한 업체보다 70.4%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의 큰차를 보였다고 한다.

## 중소기업 '꺾기' 금지 실시

은행감독원은 '97. 8. 18일부터 중소기업에 은행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전면 금지시켰다.

4단계 금리 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500명 이하 상시근로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까지

허용해온 현 '꺾기'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날부터 금지키로 했다.

이로인해 이미 '꺾기'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아놓은 예금 1조9,000억원은 9월13일까지 기존의 대출금과 상계하여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이기로 발표했었다.

이로 인해 건설업종이라는 이유로 건설업체의 81%가 대출 때 '꺾기'를 강요받았으며, 이 때문에 대출시 부동산 담보를 과도하게 설정, 담보부족의 심화와 비용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은행금융감독원의 이와 같은 발표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대출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예측속에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 한반도 지진활동조짐으로 인한 내진설계기준 및 확대 적용에 관한 대책 시급

최근 한반도의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포항 앞 바다에서 진도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대구, 부산등지에서도 감진 될 정도였으며,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중 가장 큰 규모였다.

1978년 홍성지진, 지난해 영월부근에서 발생한 진도 4.5의 지진등 최근의 한반도 거의 전지역에 걸쳐 감진 되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지진으로는 85년 Michoacan지진, 71년 미국의 San Fernando, 89년 Loma Prieta, 94년 Northridge지진, 95년 일본의 고베 지진 등 규모가 큰 지진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적피해가 심각해 그 경각심을 높여, 지진연구와 지진방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지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건축구조물에 있어 내진설계가 필수요건으로서 법적으로 적용 가미되어야 한다.

최근에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시설의 밀집과 인구집중으로 보아 만일 20여 년 전에 발생한 홍성지진과 같은 규모(약 진도 5.0)의 지진이 인구가 집중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내진설계 기준의 보완과 내진설계에 대한 확대 적용등 근본적인 대책수립으로 앞으로 발생할 지진의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안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지진공학회에 의뢰한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기상청의 지진관측 자료에 의하면 90년 들어 한반도에서 관측된 지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진의 예지는 불가능하더라도 내진설계라는 능동적인 수단으로 지진재해를 줄일수 있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진도의 증가는 건설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부분이므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적절히 조화되는 방향으로 내진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내진성이 강한 경제적인 설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도시화에 의한 인구집중, 주요산업 시설물의 증가로 지진의 재해를 더욱 크게 증폭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욱 신뢰 할 수 있는 차세대 내진설계방법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물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철저한

시공과 관리감독으로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

## 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괄 통합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건설법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다름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건설관련 법령의 통합이다.

타 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은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여러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에 여러 법령에 제각각 적용되어 중복규제, 법률간의 상충, 법 적용의 모호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종 건설관련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기존의 「건설업법」을 대폭 개편, 그 명칭을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법」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을 폐지하는 대신 동법에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토목, 건축, 철강, 준설 등 도급시공 뿐 아니라 이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던 산업설비 공사, 환경시설 공사와 기계설비,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그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던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건축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등 5개 등록대상업종도 각 개별법에서 삭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는 건설업으로 흡수하였다.

## 정부공사입찰 '97등급별 편성확정

조달청은 대형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1등급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1천1백억원

'97 등급별 편성표

(단위:미만·이상, 억원)

군 별	'97시공능력평가액(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1군	1,100이상(토건 115개사)	650이상	400이상
2군	1,100~350(147개사)	650~350	400~180
3군	360~185(263개사)	350~180	180~105
4군	185~120(320개사)	180~115	105~75
5군	120~80(394개사)	115~70	75~60
6군	80~54(442개사)	70~50	60~45
7군	54~30(855개사)	50~30	45~30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액임

이상으로 하고 배정범위도 토목의 경우 6백 50억원 이상으로, 건축은 4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조달청은 7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97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발표, 7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달청이 발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는 건설업체들을 시공능력 평가액 순서에 따라 7개 등급으로 편성, 정부발주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해 시공능력에 따라 제한경쟁에 부치는 제도이다.

올 등급별 편성에 따르면 시공능력 평가액이 1천1백억원 이상인 1등급업체는 모두 115개사로 공사배정범위는 토목의 경우 지난해 600억원 이상에서 6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 이번 등급별 편성에 포함된 업체수는 지난해 2천 321개사에서 올해는 2천 536개사로 증가했으며 입찰자격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조정됐다.

'97년도 7월부터 공사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이 되는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이 확정됐다. 업체별 시공능력 순위는 다음 표와 같다.

###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국내경기가 불황의 늪을 지나 점차 경기의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불황은 3/4분기까지 이어질것이라는 예측속에서 건설경기의 소폭의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상반기까지의 국내건설수주가 특히 공공토목공사 발주 및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아파트 신축 증가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기미에 편승하여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재개발 및 재건축도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경기중 여타부문과는 달리 건설경기는 일찍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특히 2/4분기 후반에 공공토목공사 국도, 철도, 교량,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환경관련 시설공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주규모가 큰 신장세를 보였다.

현재 하반기 공공부문의 주요 공사로 꼽히고 있는 것은, 부실논란이 여전히 일고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추가 발주, 경원선, 경의선, 등의 복선 전철화, 울산 산업연구단지 조성, 서남권 산업철도 건설, 고속도로 확장,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설, 의정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등이다.

또한 민간부문 주택 건설경기의 회복세도 예상되고 있는바, 민간 토목부문에서도 엔고



〈표. '97건설업자 시공능력〉

(단위: 억원)

순위	상 호	'97 한도액	'96년도		순위	상 호	'97 한도액	'96년도	
			순위	한도액				순위	한도액
1	현 대 건 설	41,895	1	32,603	51	고 려 개 발	2,873	51	2,385
2	대 건 설	36,981	2	27,485	52	한 보 건 설	2,870	43	2,991
3	삼 성 물 산	31,486	3	26,304	53	계 룡 건 설 산 업	2,750	59	2,132
4	동 아 건 설 산 업	26,751	4	23,113	54	삼 성 호	6,628	48	2,568
5	대 림 산 업	19,641	5	14,956	55	한 일 건 설	2,589	70	1,900
6	엘 지 건 설	18,459	6	13,809	56	신 신	2,551	67	2,030
7	포 스 코 개 발	15,347	12	8,788	57	나 산 종 합 건 설	2,534	101	1,323
8	한 보	15,300	7	12,220	58	한 일 성 건 설	2,514	78	1,666
9	현 대 산 업 개 발	15,151	8	11,964	59	일 성 건 설	2,461	53	2,225
10	쌍 용 건 설	14,387	9	11,962	60	서 광 건 설 산 업	2,356	68	1,941
11	삼 성 중 공 업	11,841	11	9,116	61	엘 지 엔 지 니 어 링	2,336	72	1,838
12	선 경 건 설	11,210	10	9,150	62	공 영 토 건	2,299	54	2,215
13	한 국 중 공 업	10,928	16	7,344	63	금 광 기 업	2,291	75	1,783
14	금 호 건 설	10,775	13	8,443	64	대 인 건 설	2,286	60	2,117
15	한 진 건 설	8,890	15	7,818	65	라 인 건 설	2,279	55	2,171
16	한 두 산 건 설	8,889	14	8,146	66	한 술 건 설	2,271	79	1,657
17	동 부 건 설	8,323	17	7,045	67	동 성 종 합 건 설	2,212	52	2,355
18	신 안 종 합 건 설	7,029	19	5,858	68	임 광 토 건	2,206	62	2,090
19	롯데 건 설	6,699	20	5,589	69	한 진 종 합 건 설	2,185	64	2,088
20	한 신 공	6,661	24	5,047	70	효 자 종 합 건 설	2,114	61	2,107
21	청 향 구 설	6,379	25	4,996	71	진 로 건 설	2,099	56	2,169
22	라 건 설	6,170	22	5,201	72	화 성 산	2,082	66	2,066
23	벽 산 건 설	6,012	23	5,181	73	동 동 신 신	2,068	57	2,168
24	경 남 기 업	5,853	26	4,932	74	대 동 주 택	2,060	63	2,089
25	삼 환 기 업	5,513	29	4,597	75	삼 의	2,048	69	1,920
26	극 동 건 설	5,072	30	4,586	76	신 원 종 합 개 발	2,021	74	1,806
27	현 대 중 공 업	5,003	18	6,074	77	두 산 개 발	2,015	49	2,563
28	풍 림 산 업	5,000	31	4,235	78	신 일 건 업	1,969	65	2,087
29	삼 성 엔 지 니 어 링	4,918	38	3,505	79	국 제 종 합 건 설	1,930	73	1,832
30	신 화 건 설	4,723	41	3,056	80	이 수 건 설	1,915	174	510
31	우 성 건 설	4,689	28	4,735	81	국 제 종 합 건 설	1,810	71	1,841
32	우 방 영	4,644	35	3,861	82	효 성 중 공 업	1,803	102	1,312
33	태 영	4,565	33	3,965	83	시 대 종 합 건 설	1,776	81	1,650
34	코 오 룡 건 설	4,492	34	3,943	84	삼 협 개 발	1,748	89	1,510
35	기 산 업 개 발	4,315	32	4,143	85	삼 익 주 택	1,727	83	1,560
36	고 려 산 업 개	4,228	37	3,515	86	남 양 건 설	1,694	85	1,548
37	건 영	3,998	21	5,463	87	삼 성 건 설	1,673	88	1,511
38	신 성	3,919	46	2,828	88	상 우 종 합 건 설	1,656	84	1,559
39	삼 부 토 건	3,782	36	3,603	89	한 국 종 합 건 설	1,651	118	917
40	한 양	3,676	27	4,905	90	대 호	1,640	82	1,595
41	성 원 건 설	3,622	42	3,043	91	대 산 건 설	1,636	94	1,393
42	남 광 토 건	3,614	50	2,522	92	성 지 건 설	1,632	87	1,528
43	보 광	3,533	39	3,356	93	해 태 제 과	1,591	106	1,169
44	벽 산 개 발	3,255	40	3,067	94	범 양 건 영	1,575	80	1,654
45	대 아 건 설	3,245	47	2,645	95	송 도 산	1,567	76	1,717
46	금 강 종 합 건 설	3,154	45	2,835	96	미 도 파 영	1,552	100	1,328
47	한 라 중 공 업	3,050	77	1,712	97	부 도	1,521	92	1,435
48	대 우 중 공 업	2,981	206	432	98	두 진 종 합 건 설	1,517	91	1,460
49	신 동 아 건 설	2,955	44	1,680	99	진 흥 기 업	1,479	96	1,376
50	아 남 건 설	2,921	93	1,403	100	서 한	1,423	104	1,226

로 인해 촉발되는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설비투자 증가를 조심스럽게 내다 보고 있다.

건설경기의 밝은 기대에 비춰 건설사들의 자금난은 예상밖의 악화로 건설경기의 하반기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레미콘 주문시의 강도(呼稱強度)는 설계기준강도에 기온에 따른 보정치를 더한 값으로 발주한다.

